

Effec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on the Ego-identit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Health college students

Ye-Sook Choi*, Eun-Young Oh**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Health Education Program can be a competency strengthening program based on the training of excellent healthcare professional in the future by confirming that this paper is effective in improving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in health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Sixty students were assigned either to the experimental group (30 students) or control group (30 students). Data were analyzed with χ^2 -test and t-test using SPSS/WIN 20.0 progra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higher scores for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t=2.12$, $p=.038$) and self-leadership ($t=2.91$, $p=.007$)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5 weeks after the program finished was supported b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program can be used as a tool to promote the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Health college students.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examine long term effects of health education.

▶ Keyword: Health, Students, Identity, Social problems, Leadership

I. Introduction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인적 자본 중심의 지력 주도형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과거에 비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 한다[1]. 이에 대학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창출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협력적 학습 및 탐구능력, 매체활용능력 및 다국 문화의 이해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

한편, 대학 시기는 사회진출 직전의 과정으로 성인다운 책임과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막상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는 학생신분이라는 반독립-반의존적 존재로서의 모호성 때문에 혼자만의 능력이나 판단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현실 속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3].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시험이나 과제로 인한 학업 및 임상실습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학시기 올바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게 되며[4], 복잡한 임상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효과적이고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를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보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

• First Author: Ye-Sook Choi, Corresponding Author: Eun-Young Oh

*Ye-Sook Choi (choiys@hit.ac.kr), 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Eun-Young Oh (oey0443@hanmail.net), Dept. of Nursing, U1 University

• Received: 2017. 08. 24, Revised: 2017. 09. 11, Accepted: 2017. 09. 18.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cademic Research Grant from Daejeon Health Institute Technology of Korea(2016028)

능력의 저하 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저학년부터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아정체감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개인의 개별성, 독자성의 의식 또는 자각을 의미하며, 외적 변화와 내적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일관된 자기로서 계속 존재하려는 주체적인 자아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6].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일관성을 갖고자 한다[7].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건강에 위협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이 갖춰야 할 자질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이며[8]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 상황들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내려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9-11]으로서 참여와 자기성찰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셀프리더십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 곧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의 여러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성과 지향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12-13]. 이는 개개인이 전문직으로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성과를 높이고 성과와 목표에 따라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13-14]. 실습과 같은 참여 학습의 기회를 많이 경험할수록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므로[5]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될 보건계열학생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여 학습은 참가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법중의 하나이다[15]. 이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적 상황 속에서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16], 다양한 대상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유도하여 긍정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17, 18]. 또한, 자기이해 및 통제를 통한 자기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여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킨다[19-20].

지금까지 전공교육과 연계한 참여 학습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 분야에서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공연계 학습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21]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학 전공연계 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2] 단계 수준으로 그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공협력 간 참여 학습이 보건계열 학생의 자아정체감,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효과적이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건강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갖춘 보

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셀프리더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Methods

1. Study Design

본 연구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Participants and Sampling

본 연구의 대상자는 D대학교의 보건계열(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재학생을 편의 표출하였다. 해당학과의 동의를 받아 학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모집하였고 교내 유사한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이 불가능한 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G Power 3.1.2 [23]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김원경 등(2015)[19]의 연구결과에서 구해진 효과크기(effect size) $d=0.8$, 유의수준(alpha) .05, 통계적 검정력(power) .80으로 설정하고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단별로 2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중간탈락자 10%를 고려하여 30명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30명은 실험군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에는 동의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은 30명의 학생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중간에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1041490-20161010-HR-003)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3. Instrument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로, 자아정체감은 박아청[24]이 개발한 60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아청

[24]의 Cronbach's $\alpha=.92$ 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6$ 이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최이순[25]이 번안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R) 도구로 52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이순[25]의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4$ 이었다.

셀프리더십은 김한성[26]의 도구로 18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5$ 이었다.

4. Intervention

4.1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본 연구에서 적용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보건계열(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학생들을 위한 전공연계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수 4인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계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계프로그램은 보건계열 중에서 임상에서 접촉의 기회가 많은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학생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건강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자 구성하게 되었다.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실행과 지역사회에의 기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 학과가 연합하여 진행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교내교육과 현장형 실습 적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지역사회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대상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센터 관계자 1인이 담당하는 가구 수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기보다는 책자를 이용한 방문교육서비스 수준으로만 제공[27]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자 계획되었다.

4.2 Content and structure of health education program

첫째,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영아 및 모성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초건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반되어지는 활력징후 측정법,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검사법 등에 관한 교내교육(이론, 실습)과 현장형 실습적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중재 기간은 실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성이 확인된 선행연구[19, 28]를 참고하여 교내교육은 주 1회 60분 4주간 이루어지고 현장형 실습은 120분간 1회 실시하였다.

셋째, 교내교육 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 총 240분간 소그룹(1팀당 6명씩) 형태로 이루어졌다.

1회차: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활력징후 측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2회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내용(임신, 분만 및 피임법에 관한 이론 및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3회차: 성관련 질환의 종류 및 감염관리에 관한 이론 수업과 대처방법에 관한 소그룹 토의

4회차: 혈액검사(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소변검사 및 골밀도검사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수자는 프로그램을 매 회마다 도입기(5분)-본론(45분)-정리기(10분)로 진행하였다.

도입기에서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본문에서는 소그룹별로 상호협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팀원 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격려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각 팀이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에 의해 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리기에서는 각 회기별 교육의 중심 내용과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내용을 상기시켰으며, 자신의 역할 및 책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내용을 매 회 작성하고 그에 관해 토의하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넷째,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은 1회 120분간으로 교내에서 진행된 교육내용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 교육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교수자는 현장실습에도 함께 참가하여 교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소그룹별로 결정한 팀원이 각각의 역할을 목표한 그대로 수행하도록 독려했다.

5.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을 위해 D대학교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설문지는 자필로 작성되었다. 설문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하였다. 연구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사전조사, 중재 제공,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시작직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을 수집하였으며, 실험군에게만 5주간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후검사는 실험군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 대조군은 사전 조사 5주 후에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을 수집하였다. 매 자료수집 시마다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6.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05$ 로 하였다. 종속 변수의 정

규성 가정은 히스토그램, 왜도, Kolmogorov-Smirnov (K-S) 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성을 충족하였으므로 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의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Independent t-test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나이, 학년, 전공만족도, 동아리 활동, 졸업 후 희망 진로, 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취도, 현 건강상태, 주거형태 등에 대해 두 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한 집단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7세이었으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 모두 약 90%이상 학생이 자신의 현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3.3%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약 70% 이상에서 졸업 후 입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약 50%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안정 때문에 보건의계열 학과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60%가 지난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 3.9이하로 중위권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약 50%이상에서 또래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약 70%이상에서 기숙사 또는 자취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0)	Cont. (n=30)	χ ²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3(10.0)	6(20.0)	1.19	.274
	Female	27(90.0)	24(80.0)		
Age(yr)		20.67±1.94	20.90±2.02	-0.46	.704
Grade(yr)	First	8(26.7)	7(23.3)	0.80	.849
	Second	10(33.3)	11(36.7)		
	Third	6(20.0)	8(26.7)		
	Fourth	6(20.0)	4(13.3)		
Satisfaction on Major	Dissatisfaction	2(6.7)	3(10.0)	0.22	.895
	Satisfaction	23(76.7)	22(73.3)		
	Very satisfaction	5(16.7)	5(16.7)		
Club activity	Yes	19(63.3)	19(63.3)	0.00	1.000
	No	11(36.7)	11(36.7)		
Hope for the employment field	General hospital	23(76.7)	22(73.3)	0.09	.766
	others	7(23.3)	8(26.7)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9(30.0)	8(26.7)	0.29	.866
	Aptitude	5(16.7)	4(13.3)		
	Stable job	16(53.3)	18(60.0)		
Academic performance	2.99≥	8(26.7)	4(13.3)	1.68	.433
	3.00 ~ 3.99	18(60.0)	21(70.0)		
	4.00≤	4(13.3)	5(16.7)		
Perceived health state	Unhealthy	4(13.3)	5(16.7)	3.13	.215
	Moderate	11(36.7)	5(16.7)		
	Healthy	15(50.0)	20(66.6)		
Current residence	Parents's house	7(23.3)	6(20.0)	0.10	.754
	Studio or flat	23(76.7)	24(8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건강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Independent t-test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사전 평균 점수 비율은 약 60% 이상으로 중위권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p.(n=30)	Cont.(n=30)	t	p
	M±SD	M±SD		
Ego-identity	197.90±30.17	198.27±23.35	-0.05	.958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189.47±20.47	184.57±17.38	-1.37	.322
Self-leadership	60.73±6.61	59.23±8.34	0.77	.44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 Hypothesis Testing

5주간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 종료 직후 두 집단 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실험군(195.60±25.22)이 대조군(182.57±18.8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27, P=.027), 셀프리더십도 실험군(63.00±7.6

1)이 대조군(58.33±9.3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2, P=.038). 하지만 자아정체감은 실험군(213.10±36.55)이 대조군(204.37±29.55)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2, p=.313).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과 셀프리더십에서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Effect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t	p
		M±SD	M±SD		
Ego-identity	Exp.	197.90±30.17	213.10±36.55	1.02	.313
	Cont.	198.27±23.35	204.37±29.55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Exp.	189.47±20.47	195.60±25.22	2.27	.027
	Cont.	184.57±17.38	182.57±18.80		
Self-leadership	Exp.	60.73±6.61	63.00±7.61	2.12	.038
	Cont.	59.23±8.34	58.33±9.3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IV. Discussion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5주간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되었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정체감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전공간 협력 프로젝트를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나타낸 김근곤 등[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1]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전공 간 협력과 소그룹 팀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1]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현장형 실습프로그램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이슈가 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

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학생들이 실제로 교육현장에 투입되어 소그룹별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와 역할분담에 따른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봄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의 향상에도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방식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5]의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교내교육프로그램과 현장형 실습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함께 소그룹 팀원 편성 시 전공별 학생의 혼합배치, 교내 시뮬레이션의 실습체험,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의 학생 직접 참여 방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잠재능력이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자아정체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점수 차이가 크게 좋아지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방식의 보건계열 학과간의 전공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있으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변수를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창출, 문제해결 및 자기관리 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 구성된 다양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참여 학습”이라는 맥락에서 프로그램 참여 그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획득함과 동시에 타인을 수용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17, 18]에서 본 연구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점수가 올라간 점을 감안한다면 1주의 현장적용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적용기간을 더 늘려서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학제간(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및 방사선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작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및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한 점에 의의를 가지나 결과의 해석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지 못하고 편의표출법을 사용하였으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시 보건계열 전공지식 및 시뮬레이션 및 실험실습, 현장형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의 내용을 습득하는데 제한이 따르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에 대조군을 두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무작위 배정을 수행하지 못 하였으므로 혼돈변수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약 5주가 경과한 시점에서만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한 전공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전공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응력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이며 아울러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에 기반이 되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총 5주간 적용한 후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 관련 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내에서 주 1회, 60분씩, 총 4주간 교내프로그램과 현장교육프로그램을 1회, 120분 참여하는 총 5주간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영아

및 모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활력징후 측정법,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검사법 등에 관한 교내교육(이론, 실습)과 교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선행연구[19]결과와 달리 자아정체감의 두드러진 향상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근곤 등[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인적인 자기관리의 리더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 실무교육을 제공[29]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이 학습된 전공 관련 이론적 지식을 지역 사회에서 실제 적용가능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K. K. Kim, J. Yoon, S. Y. Park, J. H. Bae, “The effect of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project learning on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4, No. 2, pp. 252-2, December, 2008.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1>
- [2] S. U. Kim, “Directions of higher education for intelligent man power development in knowledge-based socie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34, No. 1, pp. 117-135, March, 2002.
- [3] M. H. Hwang, H. J. Lim, J. S. Im, B. Y. Son, “Understanding latent sub-group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level of ego-ident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3, pp. 115-142, September, 2012.
- [4]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June,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5] S. H. Cho, S. J. Park,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Conference Proceedings*, Vol. 34, pp. 101, November, 2015.
- [6] P. H. Mussen, J. J. Conger, J.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4th ed.)*” NY: Harper& Row, 1974.

- [7] A. C. Park,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aspects of ego-identity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8, No. 1, pp. 301-312, March, 2004.
- [8]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23-432, August, 2013.
- [9] T. J. D'Zurilla, A. Nezu, "Social problem solving",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1, pp. 201-274, 1982.
- [10] Mayer, "Problem solving in encyclopedia of creativity. 2", Elsevier, pp. 437-447, 1999.
- [11] J. Y. Lee, J. B. Song, K. Y. Kim, S. H. Paik, T. W. Lee, "The effects of robot programming learning using pico cricket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e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4, No. 2, pp. 17-26, February, 2009.
- [12] G. A. Seomu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1, No. 1, pp. 45-58, February, 2005.
- [13] H. S. Park,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employee's self-leadership, the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7, No. 9, pp. 181-188, September, 2012. DOI: <http://dx.doi.org/10.9708/jksci/2012.17.9.181>
- [14] S. Y. Park, "Exploring possibility of the leadership development course as a general education : The case of a university", *Kor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6, No. 2, pp. 105-126, June, 2012.
- [15] S. Bradley, "Participatory learning", *Dialogue Diarrhoea* 1995;Mar-May;(60):2[cited 2011 April 1]; Available from : [URL:http://rehydrate.org/dd/dd60.htm](http://rehydrate.org/dd/dd60.htm)
- [16] M. Y. Jho,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2, pp. 239-248, December, 2010.
- [17] H. Kim, "The effect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self-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 11, No. 2, pp. 17-33, November, 2008.
- [18] N. Y. Yang, S. 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33-42, February,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33>
- [19] W. G. Kim, H. I. Cho Chung, "Effects of Korean enneagram program on the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4, pp. 393-404, September,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33>
- [20]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Hall, 1983.
- [21] M. S. Moon, "Developed community service program for nursing major for health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pp. 1-119,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August, 2009.
- [22] Y. M. Kwon, "The experience of service-learning in connection with the major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208-217, August, 2011.
- [23]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 1149-1160, November, 2009
- [24] A. C. Park,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3, pp. 373-392, September, 2003.
- [25] Y. S. Choi,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 2, pp. 413-428, May, 2002.
- [26]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jobs satisfaction at middle schools", 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02.
- [27] J. E. Cho, G. J. Cho, "A study on changes of the effect of factors to married immigrant Women's health :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2009, 2012)",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 7, No. 2, pp. 5-28, August, 2014. DOI: <https://doi.org/10.15685/jms.2014.08.7.2.5>
- [28] D. H. Kim, Y. J. Lee, M. S. Hwang, J. H. Park, H. S. Kim, H. G. Cha,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integrated clinical practice program (SICPP) o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in a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3, pp. 499-509, December,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3.499>
- [29] J. J. Hong, C. S. Song, "Essential basic nursing skill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1, No. 12, pp. 147-155, December, 2016. DOI: <https://doi.org/10.9708/jksci.2016.21.12.147>

Authors



Ye Sook Choi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Science from Konyang University, Korea, in 2011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5, respectively. Dr. Choi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Daejeon, Korea, in 2015.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She is interested in exercise intervention and Simulation in Healthcare.



Eun Young Oh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Science from Daejeon University, Korea, in 2007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5, respectively. Dr. Oh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U1 University, Yeongdong, Korea, in 2016.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U1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cognition and cognitive interventions for cognitive decline.